

한적, 1차 후보자 선정... 광주지역 탈락 이산가족 실망·한숨

“가족들 얼굴 눈에 선한데 이번에도 못 만나다니...”

“20년 넘게 기다렸는데 안타까워... 희망 끈 놓지 않을 것”

다음달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1차 후보자 500명이 지난 24일 선정되면서 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같은 마음을 가진 고향의 이산가족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다.

상봉단 후보에 포함된 이산가족은 설레는 가슴에 벌써 마음이 들쭉했지만, 탈락한 사람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상봉단 후보 500명 중에서도 100명만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어

또 한 차례 상봉 여부를 놓고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지 올해로 18년째인 광주 거주 명상엽(83·평안남도 대동면 출신) 할아버지는 북한에 있는 6형제를 만나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명단을 올리지 못해 아쉬운 탄식을 내뿜었다.

1950년 6·25 전쟁 발발과 함께 고향을 떠난 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족들의 이름과 얼굴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남북관계가 긴장과 완화를 반복할 때도 가

족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버려본 적이 없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남북 이산가족 상봉 소식에 들떠 있었지만, 결국 올해도 상봉단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하고 말았다.

명 할아버지는 “대한적십자사 후보자 발표를 했지만, 소식이 없어 너무나 안타깝다”며 “솔직히 이번엔 만나지 못하는 게 아쉬운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섭섭한 마음이 더욱 크다”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남북 화해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고, 올해 한 차례 더 상봉할 수 있겠다, 또 기다려 볼 것”이

라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함경남도 정평 출신인 김성연(80) 할아버지도 탈락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했다.

그는 6·25 전쟁 당시 홀로 남한으로 피난을 왔다가 가족들과 헤어졌다. 지난 20년 전 대한적십자사에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지난 2004년 중국에서 여동생을 만났고, 부모님을 비롯한 동생 2명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단 후보 명단 발표 소식을 들었지만, 후보자라는

소식을 아직까지 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20년 넘게 기다렸는데 이제라도 만나면 좋겠다. 솔직히 자포자기 심정이 들 때도 있고, 기대하면 실망도 커질까봐 일부러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대한적십자사의 연락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 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인원은 전국 12만 8824명으로, 이 가운데 광주 656명(0.5%), 전남 1006명(0.78%)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아리랑 5호 발사 성공 지난 22일 오후 8시39분(한국시각 22일 오후 11시39분) 러시아 아스나 발사장에서 다목적실용위성5호(아리랑5호)가 발사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3일 오전 5시35분께 대전 향우연 지상국과 첫 교신을 하고 위성체의 상태가 양호한 것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정부 금강산관광 회담 ‘고심’

北 수정제의 거부 가능성 이르면 내주초 회신할 듯

정부가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에는 합의했지만 금강산관광 회담에 대한 북측의 제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한 당국자는 24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8월 말~9월 초에 열자는 북한의 수정 제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입장을 정한 뒤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회담을 개최하자고 희망한 시점이 일주일 가량 남아 이르면 내주 초 북측에 답변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8월 말~9월 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금강산 문제는 조급히 움직이는 것보다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회담 때 충돌하지 않고 발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각자 열심히 공리화 뒤 시간을 두고 만나야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 측이 금강산회담 날짜로 제안했고 전날 이산가족 상봉 날짜로 결정된 내달 25일 대신 새 날짜를 제안할지 여부 등을 여러모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 과정에서 ‘선(先) 금강산회담’을 고집하지 않은 측면을 고려해 우리도 내달 25일 이전 날짜를 수정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달 25일을 고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와 관련, 청와대의 감사원에 대한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아담 법사위원 명의의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지원 의원, 왼쪽은 박용진 대변인. /연합뉴스

양건 감사원장 사의 정치 논란 비화

양건 감사원장의 전격적인 사의 배경을 놓고 각종 설이 난무하는 등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양 감사원장은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양 원장은 전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11일 임명됐으며, 잔여임기 약 1년7개월을 남겨놓은 상태다.

그러나 양 감사원장은 지난달 10일 전임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뒤 ‘정치 감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새누리당 내 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양 감사원장에 대한 사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여러 내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때문에 이번 사의를 두고 25일 일부 언론 등에서 양 감사원장이 청와대와 인사 갈등 끝에 사퇴를 결심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배경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공석 중인 감사위원에 대통령인사위원 출신의 장모 교수를 염두에 두고 양 감사원장에게 제청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 감사원장은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을 거론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누가 봐도 감사원이 권력 눈치보기 감사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이번 감사원장의 전격적인 사퇴 배경 역시 권력압박이 자라 잡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며 “임기보장과 더불어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원장의 사퇴가 정치적 외압설과 인사갈등설 등 잡음에 휩싸인 것에 대해 청와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후임 감사원장으로는 안대희 전 대법관과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등이 거론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지역원로들, 장취국 만난다는데...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가 9월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후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3년 전, 장취국 교육감을 추대했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조만간 모여 장 교육감의 재선 행보와 시민후보 선출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대위 “재선 의증 확인 위한 것”
경쟁후보 “재추대 여론몰이” 반발

여론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광주교육계에 따르면 ‘2010년 광주시교육감 시민후보 추대위원회’ 대표들이 27일 오후 6시30분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모여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모임에는 장취국 교육감을 비롯해 당시 추대위원장을 지냈던 이흥길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오종렬 진보연대 상임고문 등 추밀 운영위원 13~14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장 교육감의 재선 도전 여부와 시민후보 선출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 준비를 맡은 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장 교육감을 추대했던 광주시민사회 원로들이 장 교육감의 내년 행보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며 “이날 모임은 장 교육감의 내년 선거에 대한 의견과 광주교육의 정책적 방향 등에 대해 원로들의 자문을 듣는 자리 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같은 진보계열의 반(反) 장취국 진영은 “재추대를 위한 밀실 모임”이라

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장 교육감 측은 이 모임을 한 달가량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원로들을 움직여 ‘시민후보 재추대’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도 “장 교육감의 실정이 잇따르면서 상당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원로 어른들에게 동정을 얻어 ‘재추대’로 몰고 간다면 시민사회단체의 분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바닷물 방사능오염 2주마다 공개”

정홍원 총리 지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수입 수산물은 물론 바닷물의 방사능 오염 검사 결과까지 주기적으로 발표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25일 전했다.

정 총리는 전날 오후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장

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차장과 긴급 ‘방사능 오염식품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지시했다.

정 총리는 “오염수 대량유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SNS를 중심으로 다시 근거 없는 괴담이 나오고 있다”며 “관련부처들은 방사능 관리현황과 각종 검사결과를 2주마다 발표해 이를 차단해달라”고 당부했다.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건 물 2974㎡
감정가액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4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 지 3198㎡ 건 물 1107㎡
감정가액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3억

회정동 예식장
대 지 1094㎡ 건 물 4489㎡
감정가액 41억5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매진행중이거나 정치중인 물건을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가구)
분양가격 전유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잔여가 쓸 수 있는 전유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부실속 친환경 명품주택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 월 1,600만)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36억
- 월산동 6층 건물 매 14억5천 (보증금 2억8천, 월810만)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5천
- 첨단 구부점포 105㎡ 매 8억6천 (보증금 8천, 월430만)

대지/전답

- 나주 혁신도시 인근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광산구 신항동 생산녹지 1,980㎡ 매 6억5천 (창고,공장 적합)
- 완도군 약산면 11,000㎡ 매 8억4천 (펜션,귀농지,전원주택용지 적합)
- 장흥군 장평면 13,165㎡ 매 3억5천 (대 660㎡, 신축주택포함)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 (연수원,오양병원,관광농원 적합)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 (바다전망,전원주택,펜션 적합)

기타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 (용 4.5억 포함)
-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
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
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공장 매매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 토 지 】
4,864㎡
【 공 장 】
375㎡
【 사무동 】
161㎡
기계장치 포함

【 용 도 】
특수시멘트
(물탈 등)제조공장

매매가액
3억원

조성중인 장평농공단
지 토지분양가 평당
239천원

017-602-1948